

지역 소식통

부량면노인회, 깨끗한 지역 가꾸기에 앞장서

김제시노인회 부량면분회(회장 임형규) 회원들이 벽골제 제방과 설다리 주변 환경을 맡김히 정리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로 경로당과 연수당 사용이 폐쇄되면서 어르신들이 활동의 중심점을 잃고 무료한 일상이 연속되자 임형규 회장은 이러한 때에 지역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안하였고 이에 회원들이 흔쾌히 의기투합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22일 부량면노인회 회원 20여 명이 벽골제 제방과 설다리 주변 수로에 모여 각종 영농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의 부유 쓰레기를 말끔히 걷어내고 물 속에 잠겨 있는 폐자재 등도 깨끗이 수거하였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으로 수거된 쓰레기 양은 약 6톤 가량으로, 농약병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플라스틱병, 종이류 등 생활폐기물이 주를 이루었다.

부량면 노인회는 이를 위하여 트랙터와 운반차 4대를 동원하였다. /김제=곽도태 기자

김제시, 우수동아리 프로그램 선정·지원

김제시는 지역 주민의 학습역량 강화와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0 김제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우수프로그램을 심사 선정하고 총 사업비 3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수동아리 부문에는 '지평선 미술협회'가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고 지평선 신헌연구회를 비롯한 10개 학습동아리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참신한 동아리 발굴을 위해 마련한 신규동아리 부문에는 지평선 서각회와 김제 팬클럽 동호회가 선정되었다.

또한 평생교육 기관 및 비영리법인에게 지원되는 우수프로그램 부문에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꿈꾸며 성장하는 청년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래놀이교실'이 선정되었으며,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의 '바늘양지' 침선규방공예 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김제=곽도태 기자

방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완주군, 코로나19로 예술 활동 제한... 온라인 문화 활동 주목 다양한 콘텐츠 제공하는 '방구석 콘서트'로 '코로나 블루' 치유

법정 문화도시 예비지정을 받은 완주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화향유 기회가 줄어든 주민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다.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완주군이 나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2일 완주군은 직영, 위탁 중인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계획한 공연, 강좌프로그램들을 온라인 콘텐츠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 오는 22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획공연 뮤지컬 〈상어가 나타났다〉 실황 영상을 소개한다.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상어가 나타났다〉 뮤지컬은 온라인 개학 이후 친구들의 만남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위로를 전한다.

삼례와 이서, 구이 등 3개 생활문화센터도 올해 계획한 요가와 난타 등 14개 교육 강좌를 영상으로 제작해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복합문화지구 누에사업단은 기획전시 '선데이 완주'를 이달 28일부터 5월 24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한다.

또한,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오는 22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획공연 뮤지컬 〈상어가 나타났다〉 실황 영상을 소개한다.

완주군 대표관광지 중 하나인 삼례문

화예술촌에서는 완주군 명소 소개를 가미한 토크콘서트 영상을 제작·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완주미디어센터는 온라인 콘텐츠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온라인 강좌를 열어 각 문화시설과 기관, 단체의 미디어 활동을 돕고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계층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완주군의 이 같은 방구석 문화 활동 시도는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공연단체나 예술인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누에사업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자체가 나서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란 쉽지 않다"며 "관내 문화·예술인도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시도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지난 20일 부터 용진 원주, 삼례 동원, 이서 하늘가 아파트 지하공간에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배지(종균) 입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지하에 버섯이 자란다”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일환... 지하공간 버섯 재배 활동

완주군 아파트 지하에 버섯이 자란다.

22일 완주군은 지난 20일부터 용진 원주, 삼례 동원, 이서 하늘가 아파트 지하공간에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배지(종균) 입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표고버섯 재배는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진행하는 르네상스사업 주민참여 일자리형 중 하나다.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스마트 LED등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지하공간에서 무농약으로 키운 친환경 표고버섯을 키우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판매해 수익금을 이웃돕기에 쾌척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올해는 타 지역에서 가져왔던 배지(종균)를 완주지역 농가와 연계하면서 농가와 주민의 밀접도를 높였다. 농가는 주민들에게 버섯을 더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교류하고 있다.

원주아파트 버섯나라공동체 이명숙 대표는 "버섯재배로 경로당의 소일거리가 생겨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버섯이 수확되면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크다"고 전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시기지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활동으로 아파트에 활기가 생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과 교육을 통해 재배노하우를 익혀 만족할 만한 수확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지역 농산물 판로 대책도 선제적 대응 주목

정철우 완주 부군수, "향후 초과 공급 품목까지 대책 세워야"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예 적극 나서고 있는 완주군이 향후 초과 공급될 품목까지 세심하게 예측해 판로 대책을 구상하는 등 농업 분야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정철우 완주군 부군수는 22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응과 방역대책반 추진 상

황, 해외입국자 안전보호업 관리, 자가 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재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마늘과 대파 등 향후 초과 공급될 품목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파악해 대응해 나가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며 "이제 방역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도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앞으로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품목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수요처를 마련하는 등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또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일부 공공시설물의 제한적 개장이 이뤄지는 만큼 이용객들이 활동하면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귀농 다자녀 가정 방문·격려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해마다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범사회적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나섰다.

김제시에 따르면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22일에 김제시 광활면에 귀촌한 이승현, 김미정 다자녀 가정을 방문하여 육아와 교육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슬하에 6남매(2남 4녀)에 오는 7월에 일곱째 출산을 앞둔 가구로, 시설감자와 벼농사를 지으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자녀가 한 명씩 태어날때마다 농지를 한필지씩 늘려가며 자녀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내 귀감이 되고 있는 부부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이 흙을 밟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귀농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저출산시대에 다둥이를 둔 청년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다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

는 부부의 헌신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7남매가 김제의 동량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김제시가 도와주고, 낳으면 김제시가 함께 키워준다"는 motto 아래 상하수요금 할인, 다자녀가정 대출확대 서비스 등 다자녀 지원정책 9개 사업 확대 추진하고 결혼과 출산장려, 육아 돌봄 등 아이키우기 좋은 김제 만들기 노력하면서 인내심으로 가지고 지역사회 출산율 증가에 기일층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김제시 검산동, 복지허브화 정기기부 줄이어

김제시 검산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운수)는 22일 검산동 착한가게 13호점인 '일등수산' 사업장에 착한가게 현관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중소기업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참여가 가능하다.

검산동 소재 '일등수산(대표 이승곤)'은 매출액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3만원 이상 일정액을 검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정기기부하기로 하였다.

한편 착한가게를 통해 모여진 기부금은 검산동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

련하여 어려운 이웃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산동에서는 13개의 착한가게, 3개의 착한가게에서 매월 55만원씩 정기적으로 기탁되고 있다.

일등수산 이승곤 대표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받은 관심과 사랑을 착한가게 후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지역사회로 흘러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운수 검산동장은 "착한가게, 착한가정 가입자가 많아져 지역사회내 더불어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도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